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장학월보

2012  
제233호(통권452호) **7**

- 장학특집 /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산촌에서의 아름다운 동행



#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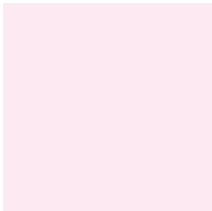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7 제233호(통권452호)



02 기대대담  
08 교육감 동정  
09 장학현장  
10 교육 칼럼  
12 특집 /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28 좋은 수업 다지기

34 교육정보

35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44 명품학교, 명품교육

55 전문가초대석

60 참여마당

64 향기나는 서가

67 지상갤러리

- 고영진 교육감 취임 2주년 인터뷰 / 편집위원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 노성희
-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 강정갑
- '경남 다문화가족자녀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안내 / 조영봉
- 이중언어 강사 양성제도 및 부모나라 언어 배움교실 / 김도현
- 다문화 청소년들의 희망프로젝트 '다사랑 오케스트라' / 박종화
- 한마음으로 어울리게 꿈나래를 펼치게 / 이영애
- 완득이와 더불어살아가는 창의적 인재 만들기 / 서화영
- 집중 지원형 글로벌 다문화 선도학교 운영 / 이현석
- 융합적 사고력으로 학습력 높이기 / 김종렬
- 패러디 시誦 UCC 만들기를 통한 문학의 수용 및 창작 / 김도형
- R-Learning 교육으로 스마트한 수업하기 / 박미경
- 이달의 교육기부
- 무모한 도전, 그리고 무한한 보람 / 서흥모
- 책 · 노래 · 운동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학교 / 백한식
- 산촌에서의 '아름다운 동행' / 변민석
- 랩(R.A.P)으로 설레임 가득한 구서분교 아이들! / 박화춘
- 두레장학으로 수업의 꽃 피우다 / 정상진
- 오감(五感)으로 행복한 학생을 기르는 Dandy 학교 / 박복래
- 옹골대 활동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 / 배현덕
-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에 대한 이해 / 최재용
- 교 원 - 덕천강 / 황명수
- 학부모 - 작은 학교에서 피어나는 큰 기쁨! / 박해연
- 학 생 - 선생님과 함께 산을 오르며 / 이지훈
- '왓칭(watching)을 읽고' / 김정민
- 응봉산계곡 / 이외선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8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7월 18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교육미담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7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이영민,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고영진 교육감 취임 2주년 인·터·뷰

- ❖ 일시 : 2012. 06. 28(목) ❖ 장소 : 교육감실 ❖ 고 영 진 교육감
- ❖ 장학월보 편집위원 : 한영자(편집위원장), 이왕민(편집위원), 윤수영(편집위원)  
김민주(편집위원), 박준일(편집위원)

### 기/획/대/답 - 고영진 교육감 취임 2주년 편집위원과의 대담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경남교육정책 실현의 중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미진한 점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되고 있는 공약 사례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대담자료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자가 별도 구성하였음)



■ 편집위원 : 먼저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을 위해 늘 바쁜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취임 2주년을 맞이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고영진 교육감(이하교육감)** : 희망이 되는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감에 취임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공교육에 대한 기대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된 정책으로 경남 교육의 장기적 목표를 이루고 수시로 발생하는 교육 현안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교육과 관련한 일들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경남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위원 :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늘 봉사와 신뢰를 강조하시며 공약 사항도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 2년 전, 15대 교육감 취임과 함께 6개 분야 정책에 대한 공약을 도민과 교육가족께 약속 드렸습니다. 그동안 공약사업들은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 학교 CC TV 설치를 비롯한 여러 사업이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임기 내 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독서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범도민 독서운동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사서 확대 등 책 읽는 경남의 활성화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으며 EBS 활용 학습 및 대학생과의 멘토링제 운영은 소득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민간기업 및 학부모로까지 확대 실시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화로 교직원의 청렴도 인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인사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사전 공개 등 각종 인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고 경남교육청만의 특화된 교육복지 정책인 초등학교 6학년 무상 수학여행비 지원이 2년 동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도민과 도내 기관장 및 기업인, 재일도민들의 관심 속에 범도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경남미래교육재단을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편집위원 : 공약사항의 이행 외에도 교육감님께서는 시대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신지요?

▶ 교육감 : 경남교육의 미래를 공약의 이행만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호주 인턴십 정책을 경남교육에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15개 특성화고에서 선발된 학생 69명을 파견하여 현재 47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베트남의 정보화 지원 사업과 함께 베트남 외가 방문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편집위원 : 학교폭력이 사회현안이 되었습니다.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감 : 학교폭력이 오늘에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장과정의 청소년기는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늘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난폭화되고 성인화 되어가는 것과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환경이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 2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경남교육의 비전 실현과 함께 특히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학교폭력과 학업중도탈락자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를 중도탈락자 50% 줄이기 원년으로 선포하여 전국 최초로 도내 전 학교에 ‘꿈키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키움교실’은 도내 전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하는 대안교실로 한명의 낙오지도 없는 함께 하는 교육의 실천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교육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경남교육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가 교육현장에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의 키워드가 된 노래와 운동과 책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영역이 조화로운 학생이 길러진다면 학교폭력과 학업중도탈락도 예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 : 고입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입전형 방법의 개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감 : 내신 100%로 실시되던 고입 전형방법이 내신 50%,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연합고사 50%의 비율 적용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되어 적용되는 고입전형방법은 중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경남의 교육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 : 학생인권조례가 도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한 주민발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학생인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교육의 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고 학생이 인격체라는 당연한 사실 또한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학생인권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정립되리라 확신합니다.

■ 편집위원 : 올해 들어 무상급식이 동지역 4~6학년까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님의 만족도는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경남교육에 함께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동참이 이루어내는 성과입니다. 올해 들어 18개 시군 읍면 초·중·고등학교와 동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면서 현재 우리 지역 무상급식은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경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편집위원 : 무상급식과 함께 6학년들의 수학여행까지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 지난 해 5월에 경남학생현장체험학습활동지원 조례가 됴므로써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은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체험학습이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한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경남교육청만의 특화된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집위원 : 교육감님께서 장애인 취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도 우리 도내 학교에 특수학교 졸업생 11명이 취업이 된 걸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 우리 경남교육의 비전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는 누구에게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얼마 전에는 20-50 클럽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불투명했던 경남의 장애인들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1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미 특수학교 졸업생 11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편집위원 : 최근 2011 수능결과 발표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경남의 결과가 기대 이하라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 교육감 : 최근 발표된 2011 수능결과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점진적인 향상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고입 전형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중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개선된 고입전형은 경남의 교육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시 지역과의 학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 강남구청과 MOU를 체결하여 유명강사 강의 수강 기회도 확대하고 또한 EBS 활용 학습 및 입시전략설명회를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교육 알리기 프로젝트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거점형 논술학교 운영, 찾아가는 논술교육으로 대도시와의 대입 경쟁에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고입전형방법의 개선,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 노래, 운동, 책을 통해 구성되어 가는 건강한 학교문화는 경남교육의 학력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편집위원 : 얼마 전에는 교육감님께서 베트남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경남교육의 자랑스러운 영광입니다. 축하드리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 예, 지난 5월에 베트남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훈장을 우리 교육청까지 직접 외주신 베트남 정부관료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베트남의 정보화교육에 이바지한 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신 것이지만, 저는 제 개인에게 보다는 경남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많은 결혼이민 여성이 있고 그들이 이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경남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베트남으로부터 받은 교육훈장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편집위원 : 최근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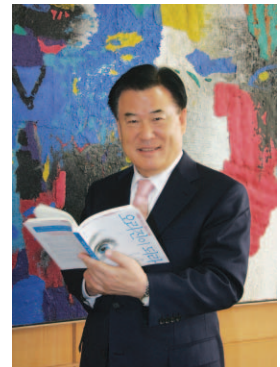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 추대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일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남교육가족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위원 : 현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 정책들은 평소 실천하고자 하는 생활신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감님의 생활신조는 무엇인지요?

▶ 교육감 :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활신조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업무 처리 등 많은 면에서 자신이 가진 생활신조가 녹아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봉사, 자율,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마련인 현장의 교사들이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봉사를 바탕으로 한 자율과 책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봉사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단, 교육 현장 속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실현과 성숙한 인격의 완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편집위원 : 교육감님께서 평소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육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요?

▶ 교육감 :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지난 해부터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1주일에 2권씩의 책을 읽고, 감상문도 자주 썼습니다. 교육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오리진이 되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원조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 벤치마킹도 원조에 밀리는 2등, 3등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시각으로 도전하고 시도해보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늘 해오던 것에 익숙해져있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낯설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속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발상이 교육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누구든 원조가 될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 : 예, 교육감님, 긴 시간 경남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경남교육을 위해 걸어오신 2년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욕심 부려 봅니다. 교육감님 늘 강조하시는 교육가족에 대한 건강 염려를 오늘은 저희들이 드러봅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이 저의 교육철학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의 추구는 해야 합니다. 지나온 2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성원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01-



02-



04-



03-



05-

- 01 다문화가정 외갓집 방문 발대식 참석
- 02 경상남도 대학-교육청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 03 6·25전쟁 62주년 기념식 참석
- 04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 선출
- 05 제32기 주부교실 경남지부 특강
- 06 통일안보교육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석해균 선장, 이희아 피아니스트)



06-





07—



08—



10—



09—



11—

- 07 경상남도교육연구원 - 2012. 독도교육역량강화직무연수
- 08 경남학생교육원 - 모험활동을 즐기며 호연지기를 키우는 교육생들
- 09 김해도서관 - 독도 관련 사진 40여 점 전시
- 10 김해교육지원청 - 초·중학생 영어능력 경연대회 끝낸벨
- 11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제43회 경남교육자료개발연구대회 시상식
- 12 하동교육지원청 - 섬진강 생태체험



12—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노 성 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저는 작년 7월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우리도교육청의 감사총괄책임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의 주요업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미흡' 기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감사총괄업무 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체감하고 있는 체감청렴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초 여러 가지 새로운 청렴정책이 마련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대상은 학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방공무원, 체육코치, 감독 등 다양합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위주로 청렴교육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들은 우리도교육청의 청렴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청렴전도사를 자청하게 된 계기입니다. 매주 2개 학교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청렴정책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아는지 질문하곤 하는데 아는 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공문을 통하여 청렴정책을 알리고, 학교장 청렴교육을 통하여 전달했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선생님이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의 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받아도 교사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교육청의 정책이 전 교직원들에게 원활히 전달되지 않으면 정책추진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서 면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였으며, 또한 감사담당관인 저의 입장에서는 청렴정책에 대한 교사와의 공감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교사 개개인의 신분상 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 것처럼, 청렴교육은 교사가 퇴임할 때까지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교육청의 규정에는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경징계 대상인데 교사는 선물을 수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감사담당공무원이 민원조사를 하면 이런 줄 몰랐다는 교장이나 교사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은 교사 본인이 모르면 나중에 신분상, 재정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교사들은 평상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우리도교육청의 추락된 청렴도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청렴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 내 청렴정책을 설명하려고 하니 시간적인 제약으로 일부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 지면을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져 교육가족들에게 청렴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에 교육감님이 직접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문가 자문, 추진역량 진단 등 청렴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②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장 개인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지역 교육청별 청렴도 평가 등급별로 3단계로 나누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청렴교육 횟수와 대상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④ 그 밖에 알선·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등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청렴실천 협약 체결, 감사담당관 공직자 통합 메일(노성희, shrohshroh@korea.kr)을 통한 부조리 신고 접수, 종합감사 시 감사반장의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경남교육계의 청렴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 공무원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인식되고 청렴 우수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강 정 갑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 1.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세계화·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1년에 다문화 가정의 유·초·중·고등학생이 3,149명에서 2012년에 4,197명으로 1,000여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가속화 되면서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의 한복판에 와 있다.

다른 인종·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관련 기관, 지역공동체에서는 다인종적 공존과 상호 존중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재능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며,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다문화교육은 사회통합과 평화적 존속을 위해 다문화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 다문화 교육의 방향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이해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가. 다문화 친화적 교육지원 구축

교육청, 지자체, 기업, 학교, 다문화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도록 노력

\* 도청, STX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 외갓집 방문 공동 사업 추진

#### 나.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확립

이중언어강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나라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여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고향력 우수 인적자원인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역량 강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 어릴 때부터 어머니 나라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도록 하여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 노력

#### 라. 학교의 역할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습 지원, 멘토링, 문화 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에 다문화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마.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 가정(학생)의 결연 지원 추진, 학생 간의 멘토-멘티 활동, 또래집단과의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 관계 구축

#### 바. 교원의 역량 강화

교사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이들 가정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 노력,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다문화관련 학생 상담, 교수전략 등에 관한 정보 교류 활동 강화

#### 사. 교육기부 활동의 활성화

기관, 기업, 대학, 개인 재능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 3.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 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지역중심학교 운영(18개교),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16개교), 다문화 자녀 재학학교 지원(42개교),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교실 운영(370가정),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단(1팀)과 합창단 운영(2팀), 탈북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나.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가정 이중언어대회 공모(4권역 1회), 어머니 나라 언어 배움 교실 운영(20팀), 다문화학생 지도 이중언어강사 양성(40명), 다문화학생 지도 글로벌 인재 육성(20여명)

#### 다.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담당자 연수(500명),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교원 연수(1200명),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자료 개발 보급(3종)

#### 라.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집 방문(37가정),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실 운영(연간)

#### 마.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중도입국자녀 공교육진입 원스톱 예비학교 운영(1교, 코디네이트 지원)

#### 바.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

다문화(탈북) 연구학교 운영(4개교),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학교(1개교), 다문화 초등·중등 집중지원형학교(2개교), 다문화가족사랑 어울마당(500명),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협의회(10회), 한국-베트남 문화관광 축제(1회)

### 4. 맺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이제 다문화사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므로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이해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는 자신도 특정한 문화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아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신념을 갖고 아동들의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만 선택하여 교육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다문화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새로운 창조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야 할 것이다.

# ‘경남 다문화가족자녀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안내



조 영 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 I. 추진 배경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 신하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수도 2012년 6월 기준 4,197명으로 작년보다 1,000여 명이 증가하였다.

이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보조,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일회성 체험활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지원에 비해 현장의 반응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금년에 '다문화가정과 학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긍심과 잠재능력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발맞추어 경남교육청에서는 그 첫 번째 행사로, 경남교육청의 '다문화가정자녀 부모나라 체험행사'와 경남도청의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을 경남 '다문화 가족자녀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공동추진하기로 협약하였다. 이 행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가 함께 외갓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II. 추진 목적

가족과 함께 외갓집을 방문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효행정신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물론, 어머니나라 언어와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미래 글로벌 사회에 대응하는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 III. 추진 방향

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어머니나라 언어와 문화체험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육성과 국제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2.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감 형성, 각 가정 자녀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3. 베트남과 필리핀의 외갓집 방문 및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다양한 영역(가정생활, 경제, 문화, 자연환경, 학교, 협동, 인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IV. 세부추진 계획

#### 1. 대상국가 : 2012년 베트남, 필리핀(연도별 순회)

가. 베트남 : 12가정(하노이 00가정 호찌민 00가정)

나. 필리핀 : 25가정(마닐라 인근지역)

#### 2. 사전답사 : 베트남(5월말 도청 관계자), 필리핀(7월초 교육청 관계자)

#### 3. 발대식 : 2012. 6. 19. 16:00~ , 경남도청 대회의실

#### 4. 방문일시

가. 베트남 : 2012년 7월 12일(목) ~ 21일(토) 예정 (8박 10일)

나. 필리핀 : 2012년 8월 13일(월) ~ 22일(수) 예정 (8박 10일)

#### 5.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가. 경상남도 거주 다문화가족자녀 중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 부모 출신국이 베트남, 필리핀 지역이고, 최근 2년 이내 외갓집(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에 한하며, 학생을 포함하여 최대 3명까지 신청(어머니 반드시 동참)을 받는데, 3명 이상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나. 각급 학교는 각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상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 6. 주요 일정 및 활동내용

가. 전체일정 : 외갓집 방문 일정 6박 7일, 현지 프로그램 2박 3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출국 및 외갓집 방문	← 외갓집 방문 →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장소집결 및 현지 프로그램 진행	현지 프로그램 진행	현지 프로그램 진행 및 입국준비	입국 및 귀가 (9일차 새벽 비행)		

나. 현지프로그램

1일(7일차)	2일(8일차)	3일(9일차)
외갓집 방문 소감 나눔 및 현지프로그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학교 방문 및 물품 전달</li> <li>• 현지 기업 방문</li> <li>• 나의 꿈, 부모의 꿈 발표회</li> </ul>	현지 유적지 방문

7. 총사업비 : 2억 1천만 원

- STX 1억 2천만 원, 경남교육청 8천만 원, 경남도청 1천만 원

V. 평가 및 환류

1. 기대효과

다문화 가족의 화목과 효행심을 자연스럽게 심어 줄 수 있고, 다문화 어머니나라 체험으로 자아 정체감을 실현하여 다가오는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보고회 : 2012. 9. 초순

가. 다문화 부모나라 체험 보고자료 제작 배포

나. 2013년 외갓집 사업에 대한 안내



# 이중언어 강사 양성제도 및 부모나라 언어배움교실



김도현

진주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원장/교육학과 교수

## I. 추진 배경

한국 사회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나 국제 결혼률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만 여명의 다문화 학생이 공교육에 취학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도 4,200여 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도 최근 초·중학교 20개 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언어배움 교실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여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나라 언어배움 교실과 이중언어강사 양성제도가 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모나라 언어배움 교실과 특히 이중언어 강사 양성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II. 추진 필요성

첫째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의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에 따른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이게 된다. 두 번째로 소통의 문제는 학력 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과부 보고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체 기초학력 미달수준에 비해 볼 때 월등히 높다고 한다. 세 번째로 따돌림과 부적응의 문제이다. 이전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상당수가 외모상의 특성 등의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자아 정체감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를 보면 이들은 특히 미래 확산성, 주도성, 친밀성 등에서 낮은 자아 정체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낮은 자아 정체감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나라에 대한 높은 존중감을 갖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중심에는 언어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언어 문제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로써,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두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중언어 교육적 접근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모국어로 배우고, 모국어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매우 가치있는 교육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추진 내용

이러한 배경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최근 부모나라 언어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이중언어강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추천을 받아 초·중학교 20개교에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의 부모나라 언어배움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나라 언어배움 교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출신국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해 글로벌 사회에 주도적 삶을 영위토록 하기위해 다문화 가정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이중언어강사로서 학교현장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과 진주교육대학은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어와 대상 언어인 다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우수한 인적자원 40여 명을 선발하여 교사에 준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경상남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 IV. 기대효과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들이 학교현장에 배치되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언어적 지원을 통한 학력 신장,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도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학교 현장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학교생활 적응력과 학업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도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다문화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교사들에게도 이중언어 강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 시에도 협력적인 지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무쪼록 다문화 글로벌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부모나라 언어배움교실과 이중언어 강사 양성제도가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인식을 넘어 상호존중의 다문화 교육 및 학교문화가 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다문화 청소년들의 희망프로젝트 '다사랑 오케스트라'



박종화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진영중학교 교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그 아이들도 여느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역시 한국의 아이들이 그 나이에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나이에 어울리는 수줍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1대 1의 멘토, 멘티가 되어 기악 레슨을 하고 있는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소속 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는 1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다문화 가정이 국내 인구의 5%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다문화 가정과 그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수’가 아닌 당연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은 성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는 문화와 예술에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예술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서로의 정신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열정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평등한 예술 활동은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끼리 그 어느 활동보다도 쉽고 빠르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하면 된다’는 성취감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다사랑 오케스트라’입니다. 현재 다사랑 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

정 학생, 일반학생, 교원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창원, 김해, 함안 등의 초·중학교에서 온 31명(바이올린 11명, 비올라 1명, 첼로 2명, 클라리넷 6명, 타악기 4명, 트럼본 1명, 트럼펫 1명, 플룻 3명, 호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교원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다문화 가정 학생과 1대 1의 멘토, 멘티로 연결되어 일주일에 평균 1~2회 정도 학생들의 기악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기가 없거나 악기를 살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악기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음악적 기량을 높이고 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연주회 관람 등을 통해 음악적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2년 8월 6일~8월 9일(3박 4일간) 진영청소년수련관에서 방학 중 음악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며 2012년 11월 3일에는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악기의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초보 학생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소리 내는 법을 알아가고, 결국은 전체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은 말로 형언하기 힘든 감동입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아이들의 행복하고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음악이, 더 넓게는 예술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화적 혜택을 받기 힘든 소외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 지역별 대학 음악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그 학생들이 보다 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사랑 오케스트라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경남을 대표하는 교원연주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2002년 우영자 진해교육장님 주도하에 경남교원관현악단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초대 단장은 엄상현 전 부교육감으로 교원오케스트라의 실력과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사단법인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2009년 6월)로 발전하였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경남교원필하모닉(단장: 마평수)은 창단 이래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많은 협연 및 해설 음악회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진취적이며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교원오케스트라로서 지역 음악의 발전과 음악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원필하모닉 단원들의 열정과 활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더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사랑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악기 연주 능력이라는 기능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그리고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는 날 더 나은 사회로 한 발짝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마음으로 어울리게! 꿈나래를 펼치게!

- 탈북학생을 위한 꿈나래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이 영 애  
창원 자여초등학교 교사

북한에서 온 소년과 소녀들. 창원시 동읍, 정병산 자락 아래 자여초등학교에는 탈북학생이라고 불리는 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말로 '췌능췌췌' 하는 학생도 있고 진한 함경도 억양으로 이것 저것 궁금증을 풀어가는 학생도 있다. 생사의 고난을 넘어온 그들이기에, 삶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 너무나 빨리 경험한 그들이기에, 포근하게 끌어안아 삶의 희망을 느껴 행복을 노래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자여초등학교에서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한마음 어울림, 꿈나래 활동이 비 온 후 하늘에 걸린 무지개처럼 밝게 펼쳐지고 있다.

## 1. 한마음 친구, 한마음 선생님

낯선 곳에 대한 기대감은 살리고 두려움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학교의 이곳 저곳을, 학교 생활의 이것 저것을 따뜻한 우정의 마음으로 한마음 친구들이 배려하여 주고, 학생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하고 1:1 맞춤형 학습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해주는 한마음 선생님을 운영하고 있다.



## 2. 한마음으로 어울리다

왁자지껍한 둘째 주 수요일 2교시, 무얼 하나 보니 한마음 통일 달리기가 한창이다. 매월 둘째 주 탈북학생과 일반학생들의 우정을 쌓기 위한 한마음 어울림 행사가 진행되는데, 학년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동화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지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꿈나래를 펼치다

지여초등학교에는 탈북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한 무엇이 있다. 바로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과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탈북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다문화 학생 8명 재학)의 학교생활을 위한 배려로 탈북전담 코디 운영이 5월, 예비학교는 6월부터 시작되었다. 3개의 특별반에서는 기초 한글반 2학급, 교과반 1학급이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 출생 후 입국한 학생(현재 4명 재학)의 경우 한국어 구사를 전혀 하지 못하여 이들을 위한 집중 한글교실과 한국어 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지원은 탈북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학력을 높여 그들의 자긍감은 물론 미래의 꿈에 대한 도전의식과 희망을 불러 일으켜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매일 아침이면 그림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의 목소리, 쫓긋 귀를 세우고 듣고 있는 별빛 눈동자들이 빛을 발한다. 탈북학생과 일반학생들 모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폭넓은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꿈나래 독서활동이 각 학급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학생들의 생활 적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1:1 맞춤형 학습, 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한마음 탁구단), 다양한 방과후 활동 등 한마음·꿈나래 활동들에는 사랑과 관심이 가득 담겨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은 한마음으로 묶여 그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완득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재 만들기

- 거점형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 -



서 화 영  
김해 신어중학교 교사

‘완벽하다. 가난, 장애인 아버지 그리고 고2 게다가 필리핀 어머니, 기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다.’

얼마 전 소설과 영화로 크게 사랑받은 「완득이」대사 중 일부분이다. 불우한 가정환경에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 완득이, 게다가 필리핀 출신의 친어머니까지 만나며 기출을 결심하는 장면의 대사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며 심지어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대한 회사의 사장인 자기 아버지까지도 고발하는 담임 동주의 노력으로 완득은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투선수를 꿈꾸며 행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교육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노력으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는 이제 제2, 제3의 완득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한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상할 때 그 사회는 엄청난 창조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다문화교육은 꼭 필요하다.

본교는 올해 ‘다문화 거점형 글로벌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현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다른 학교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몇 글자 적어본다.

본교의 운영 주제 ‘완득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재 만들기’에서 드러나듯 본교는 소수의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활동을 지양하고 대신 그러한 다문화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그 핵심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이다. 본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이 겸비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교는 매주 목요일 7교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달 마지막 주를 다문화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그 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 1학기 2회, 2학기 5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김기연 사무국장의 강연으로 다문화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 목요일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 10분이 오셔서 각국의 현황 및 문화 이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연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다문화교육 주제
6월 7일	다문화 이해 인식 개선의 날
6월 28일	다문화 이해 세상 알기의 날
8월 30일	다문화 이해 글짓기의 날
9월 20일	다문화 이해 그리기의 날
10월 25일	다문화 독서 발표의 날
11월 29일	다문화 이해 합창의 날
12월 27일	다문화 이해 영화제의 날

〈표1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간 계획〉

그렇다고 본교가 다문화학생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교에는 6명의 다문화학생들이 있는데 모두 어머니가 중국, 일본 국적이어서 외모나 말투에 있어 크게 차별의 요소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7월 9일 친구의 날을 맞이하여 다문화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을 멘토-멘티로 맺어 주말에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경주 문화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살아숨쉬는 경주의 이곳저곳을 자전거로 직접 둘러봄으로써 학생들 간의 우정도 끈끈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는 김해 인근의 한옥마을, 김해박물관 등 김해의 문화자원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다문화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김해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 물론 본교의 다문화학생들 뿐만 아니라 공문을 통해 인근 지역의 다문화학생들에게도 체험의 기회를 공유할 생각이다. 타 학교의 다문화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교의 이러한 노력들이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주위의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 지금의 교육적 활동들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나라, 힘없고 가난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손을 건네주는 사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기를 소망해본다.

# 집중 지원형 글로벌 다문화 선도학교 운영



이 현 석  
합천초등학교 교장

## 1. 들어가며

본교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16명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교는 교과부가 지정하는 다문화 ‘글로벌 선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다문화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하고 싶은 말

### 가. 본교가 바라는 글로벌 선도학교란?

배려하는 마음과 차별화된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

#### 다문화학생 교육

- 한국 체험활동 실시
  - ▶ 'I love 한국!' 체험활동
  - ▶ 재미있는 한국어 교실 운영
- 차별화된 방과후 교육
  - ▶ 교육기부 방과후 교실
  - ▶ 클래식 기타 교실 운영
- 학력신장 개별학습
  - ▶ 개인별 학력 카드 활용
  - ▶ 부진아 학생 책임지도

#### 전체학생 교육

- 문화박람회 개최
  - ▶ 다문화 축제의 날 운영
  - ▶ 이중 언어 대회 운영
- 소통중심의 인성 강화
  - ▶ 다문화 감수성 강화
  - ▶ 교육과정 시수 확보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 다문화 친구와 소통하기
  - ▶ 다문화 이해주간 운영

#### 교사·학부모 교육

- 다문화 교육기부 확산
  - ▶ 다문화학부모 1일 교사제
  - ▶ 지역사회 여건 활용 기부
- 다문화 특강 시간 운영
  - ▶ 다양한 다문화 특강
  - ▶ 다문화 교육기관 탐방
- 다문화 프로그램 확산
  - ▶ 다문화 행사 홍보 강화
  - ▶ 리플렛 및 SMS 발송

다문화교육 글로벌 선도학교

## 나.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은?

영역	활동사진	프로그램 내용	향후 계획
다문화 클래식 기타반 운영		본교 다문화가정 자녀 12명이 참여하는 클래식 소리향은 매일 아침 시간의 연습을 통해 합천군에서 주최하는 다문화행사 및 학예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양로원, 원폭피해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다문화가족 간담회		다문화가정 아버지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이중 언어 및 문화예술 익히기, 이중 언어 강사 참여 등 다양한 교육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이중 언어·문화 교내대회 개최
다문화교육 KNN방송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비람직한 다문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방영된 다문화교육 내용이 지난 5월 말에 KNN방송국을 통해 방영되었다.	다문화교육으로 소통하는 교직원 토크 조성
어머니 나라 언어 배우기 교실 운영		본교에서는 올해 6월부터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강사가 되어 중국어 및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 학부모를 통한 몽골 및 베트남어 교육 확대
이중문화 체험 활동 전개		다른 나라 음식 만들기는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미유키 학부모는 '히야시츠키' 라는 일본 음식을 만들었고, 다양한 일본 문화를 강의했다.	본교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및 문화 체험 실시

## 3. 나오며

우리사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피부색이나 외모 때문에’, 혹은 ‘지적 능력과 행동이 달라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타 문화와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교의 중심과제라고 본다.



## 융합적 사고력으로 학습력 높이기



김 종 렬  
통영 인평초등학교 교사

### 1. 융합적 사고력이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각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요즘 교육의 새바람으로 융합인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과학기술 지식에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길러 내는 교육이 바로 융합인재교육이라 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은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STEAM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을 융합하여 가르치는 수업방법이며 이러한 수업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융합적 사고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수업을 재해석하자

교사는 수업을 하기 전 교재 연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라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수업 잘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럼 먼저 교육과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속에서 융합적 요소를 탐색하고 융합 할 수 있는 교과를 선정하고 융합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단편적 교과 내용을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수업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 3. 실생활에서 찾아오자

융합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 제시가 필요하다. 학생들 스스로 내가 이 수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더욱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연다든지 배운 기술로 봉사활동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도입 부분에 상황에 맞는 미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창의적 설계를 하게 한다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4.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자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미션을 수행했다면 과제를 해결했다는 성공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 경험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된다. 미션 수행형 수업을 하는 중에 생겨나는 자신감은 다른 학습에 대한 자신감으로 옮겨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5. 새로운 도전

학교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좋은 수업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학생에 대한 열정과 항상 수업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과학에 기술과 감수성을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한 교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 ‘패러디 시(詩) UCC 만들기’를 통한 문학의 수용 및 창작



김도형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문학교육의 최대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입시제도 안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의 의미를 자기 주도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기에도 상당히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詩)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배웠던 시(詩) 내용 중 일부를 변형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 1. 패러디 시(詩) UCC 만들기란?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통해 배웠던 (또는 자신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詩)를 모둠별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로 패러디 하고, 이를 영상기법 등을 이용하여 UCC로 만드는 활동입니다.

### 2. 수업시간과 방과후를 이용한 창작 활동

#### 가. <수업 1차시> - 패러디를 위한 협의 활동

##### 1) 패러디할 원시(原詩) 정하기

이 활동은 모둠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대상이 되는 ‘시’의 선정에서부터 모둠의 전체적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웠던 ‘시’를 중심으로 논의 하며, 친숙하고 패러디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시를 선별하도록 지도합니다.

##### 2) 패러디 방향 정하기 및 패러디 하기

전통적인 패러디는 원전(原典)을 조롱·풍자하는 것이지만, 문학 수업에서 시도할 패러디는 원전과의 차이를 통해 원래 작품의 의도 및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둠 내에서 패러디 방향에 대한 토의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의 작품에 대한 반응과 해석의 관점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3) 전달 방식 정하기

패러디한 시의 전달방식에 관한 것으로 UCC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제작 방식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극식, 드라마식, 애니메이션식, 광고형식, 낭송식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패러디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교사는 현란한 기교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것 보다 시의 적절한 제시에 초점을 두어 전달방식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촬영 도구 정하기

요즈음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양이 좋아서 동영상과 사진 촬영 기능만 잘 이용해도 근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학생들이 가장 편리하고 적절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5) 음악과 자막 정하기

음악과 자막을 이용하여 시적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활동으로 자막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음악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여 전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음악은 시의 분위기에 맞게 뉴에이지나 클래식 등의 음악을 통해 제시하고(음악은 작품 본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함), 원시·모방시·창작의도·만든 사람 등을 자막을 통해 제시하여 UCC 자료 자체만으로도 창작 활동 전반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협의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사에게 점검받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합니다.

### 나.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과제 해결하기

모둠별로 학생들에게 지정된 날짜(일주일 내)까지 모든 촬영 및 편집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은 발표 전까지 교사에게 제출한 계획서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수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다. <수업 2차시> - 패러디 시(詩) 발표 및 평가

#### 1) 패러디 시 UCC 발표

UCC 창작의도 및 감상 포인트에 대해 모둠 발표자가 1분 이내로 설명하고 UCC를 학생들에게 발표합니다. (작품은 5분 정도로 만들 것을 미리 주문) 정숙한 분위기에서 교사가 제시한 평가지에 내용 및 감상평을 기재하여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도합니다.

#### 2) 교사 총평 및 학생 상호 평가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가 총평을 하고, 학생별로 작성한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다른 학생들의 반응과 장단점을 공개합니다. 각 모둠별로 수정할 사항 등에 대한 전달 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평가 점수와 교사 점수를 토대로 적절한 수행점수를 부여합니다.

## 3. 활동을 마치고

학생들의 창작에 대한 열의는 교사의 생각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널리 알려진 작품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김춘수의 <꽃>을 학교폭력 동영상으로 만든 모둠, 애니메이션으로 고등학생의 고민을 그려낸 모둠, 박재삼의 <추억에서>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에피소드식으로 그려낸 모둠 등 다양한 고민과 상상력으로 작품을 재해석하고 창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에 묻혀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교실 수업 중의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R-Learning 교육으로 스마트한 수업하기



박 미 경

창원 토월유치원 수석교사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는 누구나,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이 포함되어있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로봇기반교육이다.

로봇기반교육(R-Learning)은 기존에 로봇교육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교구로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유아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며 이동성과 상호작용성이 접목된 로봇을 또래로 느끼고 함께 놀이함으로써 인지적 개념 외에 인간적이고 정서적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는 전인발달을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각 유치원에 보급되어 있는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여 R-Learning 교육으로 스마트한 수업하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 교육용 로봇 아이로비 10분 활용하기

현재 유치원에 보급된 교육용 로봇 아이로비의 기능 중 교실활용도가 높은 3가지 매뉴얼을 중심으로 활용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 1. 출석기능으로 아침인사 나누기

출석기능은 유아들의 등원을 확인해주는 기능이다. 유아들은 아이로비와 즐거운 아침인사 나누기를 좋아한다. 출석기능을 10분 활용하면 훨씬 재미있어진다.

##### ♥ 출석기능 10분 활용하기

출석인사말을 풍족하게 해주면 된다. 아이로비의 인사말을 매일 혹은 반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유아들이 훨씬 아이로비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풍족한 인사말 추가방법은 아이로비로봇스쿨 접속-선생님방-출석-출석설정-반선택-추가 클릭해서 새로운 인사말을 넣으면 된다.





## 2. 스킨십 기능으로 아이로비와 친해지기

아이로비 몸에는 센서가 있고 머리, 팔, 다리 부분을 만지면 움직이며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유아들이 아이로비와 쉽게 친해지게 하며 이 기능을 잘 활용 한다면 아이로비는 유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스킨십 10분 활용하기

아이로비 몸의 센서지점을 요일별로 정해서 만져보게 한다. 월요일은 머리만지기, 화요일은 팔만지기, 수요일은 바퀴만지기, 목요일은 머리와 팔만지기, 금요일은 머리와 바퀴만지기, 토요일은 아이로비와 스킨십하고 싶은 부분만지기로 유아들이 스킨십 하도록 해주면 된다.

스킨십에서 제공되는 업데이트는 아이로비 로봇스쿨 접속-고객센터-공지사항을 보면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아이로비 스킨십 반응을 알 수 있다.

## 3. 앵무새에게 소리편지쓰기

앵무새는 유아가 한 말을 녹음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유아가 자기가 한 말을 녹음하고 바로 들어봄으로써 말하기 듣기 능력도 신장시켜준다.

### ♥ 앵무새 기능 10분 활용하기

앵무새 기능을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극적 상황을 연출하여 상황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다. 동화를 들려주고 주인공에게 소리편지를 쓴다든지, 동화 속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작가에게 편지쓰기를 하면 재미있다.

유아에게 빨간모자 동화를 들려준 후, 나쁜 늑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소리편지를 써보게 했다. 동화 후, 극놀이 상황으로 만들어 앵무새 녹음 기능을 이용하였더니 유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유아들은 늑대에게 편지를 쓰면서 앵무새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알게 되었다.

## R-Learning 교육으로 스마트한 유아, 스마트한 교사, 스마트한 수업

로봇의 매뉴얼을 알고 익숙하게 사용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손에 든 조작자료와 교수매체를 보다 더 돋보이게 수업을 진행시켜나갈 수 있다. 로봇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마트한 기기를 생활기기처럼 다룬다면 훨씬 더 수업이 스마트해질 것이다.

R-Learning 교육으로 유아, 교사, 수업을 모두 스마트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아이들의 꿈과 세상을 잇는 징검다리

하동초등학교는 교육기부 인프라 구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 개인 재능교육기부 명예교사제 운영

- ◆ 학부모, 지역주민 개인재능교육기부 62명 위촉
- ◆ 단기, 장기 개인재능교육기부 이원 체제 운영
- ◆ 단기재능기부 : 학급단위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 ◆ 장기재능기부 : 동아리활동 지원
  - 통기타부 외 13개 부서 136명 참여



## 지역기관 활용 찾아가는 창의적 체험활동

- ◆ 교육기부협약기관으로 찾아가는 체험활동
  - 하동군청 외 19개 기관
- ◆ 하동포구 팔십리 창체 자원지도(CRM)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 특색모형 선정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활용 (총 120차시)



## 진주교대 국어교육과와 교육기부 협약 체결

- ◆ 교육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 적용 시 지원
- ◆ 연구성과물 및 교수학습자료 제공 및 대여
- ◆ 특기적성지도, 학예행사 학생 멘토링 지원



## 무모한 도전, 그리고 무한한 보람



서 홍 모  
공군교육사령부 기술학교장 대령

“교관은 軍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기술지식의 전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이자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자양분을 충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2011년 12월 공군 교육사령부 기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며 강조한 내용이다. 30여 년 동안 일선 전투비행단, 작전사령부, 공군본부, 국방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지만 교육 분야는 처음이라 두려움반 기대반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임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육과 현장의 실무 적용이란 연결고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 경청에 역점을 두고 지휘관리를 해왔다. 그동안 장교, 부사관, 병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입대하여 기본군사훈련과 각자의 특기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마치고 군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이즈음 우리학교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관을 활용하여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부대 인근의 읍,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대다수가 농업을 주로 하고 일부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자녀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 교육기회가 부족한 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특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다짐했고 현실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니,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 유명한 가수가 몇 년 동안 수익 원을 기부했다는 이야기,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의 일원으로서 또한 군 교육기관의 지휘관으로서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했던가! 기술학교 교관 중 한사람이 교육기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책을 권했고, 개념을 파악한 후 계획을 세우고 콘텐츠 개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것이 공군 교육사령부 기술학교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하늘 꿈나무 교실’이다.

오직 軍의 기술교육만 해오던 교관들과 나에게 사회를 위한 교육기부를 해보겠다는 것이 한편으론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까마득한 도전 같았지만 자발적인 열정과 한 번 해보자는 도전정신이 우리를 ‘무모한 도전’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교육기부 프로젝트 전담팀 구성과 아울러 본격적인 교육기부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교육기부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파악했다. 2012년도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교육기부 활동 인근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경상남도 교육청과 진주시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서서히 프로그램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갔다.

먼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응용하여 알기 쉽게 교보재를 작성했고, 보유한 F-16 항공기와 항공기 각 부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날게 되는지를 실습하는 장비와 비행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비 등 보유 자산을 연계하여 학교교육의 흥미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교관 각자가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자세로 임하다보니 좀 더 흥미진진한 콘텐츠 개발로 스스로를 빠져들게 하였다. 밤을 지새우며 ‘풍동실험장치’, ‘발전기 세트’를 직접 제작했고 인근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기부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진주시 교육지원청과의 실무협조도 병행하면서 말이다.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이러한 숨은 노력들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인근 초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 26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레크리에이션’, ‘실험장치로 알아보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는 파스칼의 법칙’ 등 이론학과 ‘떨어지지 않는 비행기 만들어 직접 날리기’ 실습학과, ‘항공기 탑승 및 컴퓨터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 등의 활동을 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항공기에 적용되는 부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관 방문한 진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의 창의·과학팀 박계숙 장학관님과 관계자분들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지원을 약속하였다. 참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

는 모습을 보며 그간의 고생과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과 왠지 모를 뿌듯함이 더했다. 공군 교관 아저씨와 함께 어린 학생들이 우주와 항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작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 주위엔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고, 희망을 나눌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공군 교육사령부의 '하늘 꿈나무 교실'은 이러한 희망을 나누는 손길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웃들과 대화하고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더불어 '찾아가는 하늘 꿈나무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건상 직접 참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교육기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교관들과 아낌없이 성원해준 경상남도 교육청, 진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공군 교육사령부 기술학교의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 책 · 노래 · 운동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학교



백 한 식  
하동 옥종고등학교 교사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과열될 대로 과열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웃음과 맑은 노랫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본교 역시 수능 성적이 필요한 소수 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할 목적이거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학교를 오가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차례 교직원 협의회를 가지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학교 프로젝트’를 시행해 보았다.

우선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책, 노래, 운동’을 교육 과정에 실현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책은 학생들이 다양한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꾸고 이루게 할 현실 소통의 매체이며, 노래는 화합의 도구라 생각하여 전교생 합창과 동기 간, 선후배 간의 조화가 필요한 오케스트라 활동 및 록밴드, 사물놀이 활동 등으로 감성을 깨우고 화합하는 여유를 갖도록 했다. 또한 건강한 정신의 바탕이 되는 운동을 통해 경기규칙을 익히고 승부의 승패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학생들이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인 사회인으로 자랄 것임을 확신하였다. 꿈을 찾을 수 있는 학교, 꿈을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학교, 졸업 뒤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각 활동들은 아침시간과 수업 시간,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전 교사가 함께 운영하였다.

### 1. 생활 속 책임기로 독서의 즐거움 알기

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 : 담임과 함께하는 아침독서 시간을(08:10~08:30) 통해 매일 매일 점진적 책임기를 실천하고 독서장(행복한 책임기)을 점검·작성하면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른다.

나. 효율적 도서관 개방 운영 : 학생도서관위원(10명)들이 학교도서관 도서대출도우미로 점심(12:40~13:10)시간과 저녁(17:30~18:00)시간 동안에 활동하며, 교과교실제 실시로 도서관 담당교사(국어실)가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개가식 도서관 운영으로 학생들의 열린 독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독서행사 : 매 학기 1회(5월, 9월)도서관 및 독서행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책과 도서관, 모교 등에 관심을 갖는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1주일 다양한 독서 행사-책 속 보물 찾기, 친구야 이 책 한번 읽어봐, 나만의 명언 만들기, 너도 나도 시인되기, 책의 날 특별사면, 책 빌리고 책갈피 받기, 독서퍼즐 풀기, 우수감상문을 잡아라-를 통해 책과 친해지고, 9월 독서의 달 행사-행운을 뽑아라, 3행시 짓기, 책표지 만들기, 책 추천 엽서 배달, 좋은 독후록 찾기, 우수 감상문을 잡아라-를 통해 다양한 시상을 했다.

라. 소집단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 매주 수, 금요일 7, 8교시 독서 및 독후감 쓰기와 격주로 독서토론을 병행한 독서동아리(지도교사1명, 학생7명) 활동을 통해 1년 동안(3.16~12.23) 「변신(카프카)」 「매잡이(이청준)」,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달라 보일 걸(홍세화 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 책을 읽고 쓰고 토론하였다.

마. 독서인증제 실시 : 인증도서 권수는 필독도서 5권, 권장 및 추천도서를 포함한 청소년 도서 20권 읽기를 1, 2, 3단계로 나누며, 필독서는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권장, 추천도서 외에도 학생이 선택하여 읽고 독후 활동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고 학년말 국어교사 및 담임교사와의 문답과 독서장을 통해 독서인증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 2. 체육시간과 동아리활동을 통한 운동의 생활화

### 가. 전교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 1) 동아리활동활성화 : 주 2일(수, 금) 7, 8교시 배정되어 있는 동아리시간에 배드민턴, 탁구, 축구, 테니스 등 각 동아리 지도강사 초빙으로 활성화.
- 2) 체육시간 블록타임제 실시 :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근 옥종유환은천수영장에서 수영수업을 진행하고, 2학년 대상으로 옥종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환경을 적극 활용한 수업 실시.
- 3) 요트체험 활동 : 1,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여수(소호요트장) 및 남해요트 학교에서 요트수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4)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 선정으로 운동장 정지 작업 및 샤워실 설치, 냉방기 설치 등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 5) 도내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무너져가는 운동장을 정비하고 체육 창고를 다시 설치함.

## 나. 체육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 1) 뉴 스포츠 활용 수업 : 스피드스텝, 플라잉디스크, 츄크볼 등 변형된 도구 및 방법으로 혼성학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육활동의 참여도를 높임
- 2) 1학년 2시간, 2~3학년 각 3시간 체육선택수업 실시로 체육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 3) 왕복달리기를 매 시간 준비운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심폐지구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 유발을 위하여 기준을 만들어 달인 및 초인 학생들에게 학교장상을 수여함.
- 4) 이단줄넘기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동기유발 요소를 만들어 꾸준히 도전하게 하고 학교에서 정한 기준으로 만든 달인 및 초인 학생들에게 학교장상을 수여함.
- 5)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왕복달리기 및 이단줄넘기 종목은 달인 및 초인 도달 비율에 따라 반별 차등시상제를 도입하여 연말에 시상

## 다. 교기 육성 및 실태

- 1) 교기는 없으나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도민체전출전팀(탁구, 축구, 수영)
  - 2) 방학 중에도 각 스포츠클럽활동 강사지원 등 활동 적극 지원
  - 3) 교기를 육성한다면 소프트볼이나 축구 등 학생들의 준법성과 협동심 등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단체종목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4) 체육비전 1080 활성화 - 달인학생 학교장상, 상품 수여로 동기유발 효과 높이고, 1차 도달기준 달성학생들에게 태도영역 가산점을 줌으로써 줄넘기 활성화 효과 있음
- 마.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43%



### 3. 전교생이 함께 하는 음악활동으로 삶의 질 높이기

가. 전교생 합창 : 토요일 특별활동과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이 함께하는 합창을 격주 2시간씩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실시하여 방학식과 개학식, 학교 축제, 졸업식과 입학식 등 모든 행사에 학년별 혹은 전교생 합창이나 중창연주로 합창과 중창을 생활화하였다.

나. 옥종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 옥종 지역 초·중·고등학교 3개교가 합동으로 진행하여 지역 내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교육효과가 더딘 클래식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이 지역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전문지도강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체제를 갖추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추수지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악기 구입과 강사비 지급은 연 5,000만 원의 삼성꿈장학재단 지원예산으로 충당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 4회 정도의 연주회 감상과 창단연주회 등 자체 연주회 예산은 본인 및 학교가 부담했다.

다. 우리가락 체험학습을 통한 사물놀이반 운영 : 전통문화계승과 끈은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활동시간과 동아리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풍물기초 기능을 익히는 과정으로 운영했다.(외부전문강사 1명 초빙 운영)

라. 록밴드(지리산 반달곰) 운영 : 록밴드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젊음을 함께 발산하고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민과의 연계성을 높일 목적으로 특별활동 시간과 동아리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외부 전문지도 강사 1명을 초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한 자발적 운영을 유도했다.



# 산 촌에서의 ‘아름다운 동행’

-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 특별프로그램 -



변민석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 주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국 유일의 공립 초등 수련 교육기관이다.

본 교육원의 주 교육 대상은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며, 학교 단위로 참가 신청을 받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예절심성활동, 전통문화체험활동, 지역문화탐구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체험위주의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올해 우리 교육원에서는 산촌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테마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캠프, 다문화 가족 캠프,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행복캠프 등의 1박 2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1.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캠프 운영

올해 6회로 계획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캠프는 장애 학생에게는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능력과 친밀감 향상을, 비장애 학생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함양상림공원 탐사활동, 보물찾기, 덧잎 배 만들기, 장기자랑, 촛불의식, 애완곤충 체험, 전래놀이 등의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곳곳이 힘을 모아 활동함으로써 ‘우리’라는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였다.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캠프 운영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성과를 가져와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는 확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 다문화 가족 캠프

경상남도 내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총 3회를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한 가족들은 1박 2일 동안 전통공예, 떡 만들기, 활쏘기, 전래놀이, 우리소리 배우기, 장기자랑, 촛불의식, 애완곤충 체험, 함양약초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곳곳이 힘을 모아 활동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였다.

4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25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운영한 제1회 다문화 가족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다문화 가족캠프(제2회-7월 26일(목)~27일(금), 제3회-7월 28일(토)~29일(일))도 더욱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활쏘기



떡만들기



산촌문화의 밤 행사

## 3.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행복캠프(父子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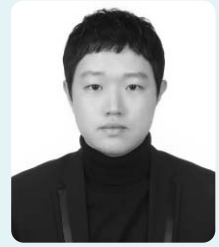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화합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애 형성을 통해 학생들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총 2회(제1회-7월 14일(토)~15일(일), 제2회-10월 27일(토)~28일(일))를 계획하여 운영한다.

참가한 가족들은 전통공예, 전통음식 만들기, 활쏘기 체험활동, 전통 춤 배우기, 가족 장기자랑, 별자리 관찰, 함양문화 탐방(함양 상림공원, 정여창 고택), 가족 간 마음 나누기 시간 등의 다양한 1박 2일 체험활동을 통해 아빠와 아들간의 유대관계를 보다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산촌에서의 ‘아름다운 동행’ 특별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였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아침에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가족 간의 사랑을 북돋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교육원 가족들은 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랩(R.A.P)으로 설레임 가득한 구서분교장 아이들!



박 희 춘

창원 구산초등학교 구서분교장 교사



### 1. 시작하며

교문 앞을 나서면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구산초등학교 구서분교장은 1962년 3월 6일에 개교한 이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현재는 전교생 8명의 아주 작은 학교이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소규모학교의 특성에 맞는 랩(R.A.P- Reading, Art, Physical education)프로그램으로 아이들 가수의 톡톡 튀는 랩처럼 신나게 꿈을 키워가고 있다.

### 2. 책읽기(Reading)로 꿈을 키워요

#### 가. 또 다른 복도, 복도 도서관

우리학교는 또 다른 복도가 있다. 바로 복도 도서관을 줄인 말인데 유후교실이 없는 관계로 책들을 복도에 비치하고 있어 생긴 재미있는 이름이다. 올해 초 복도 도서관에는 자그마한 변화가 있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전교생들이 스스로 도서관의 책들을 재분류한 것이다. 2학년 막내에서부터 6학년 큰 형까지 저학년 동화, 고학년동화, 과학, 사회, 문화 등으로 책을 분류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책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도서관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 “내가 도서관을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읽고 나서 정리를 더 잘 해야겠어요.”라고 말하며 내가 직접 도서관을 정리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나. 책 읽기 150권에 도전하다

우리학교 아이들은 150권 책 읽기를 목표로 매일 아침 20분을 책읽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서 수준을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글자크기, 그림, 분량 등으로 구분하여 낮은 수준부터 5, 4단계, 중간수준인 3단계 높은 수준은 2, 1단계로 나눠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춰 부담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3월부터 6월까지 개인 평균 50여 권의 책을 읽고 있다. 자신이 책을 읽은 후 소감을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꿈자람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복도에 독서환경판을 만들어 책을 읽

은 후 소감과 느낌을 짧게 적은 ‘책읽기 카드’와 자신의 독서량을 표시하는 ‘독서탑’을 통하여 전교생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 3. 연극, 음악(Art)으로 감성을 키워요

본교는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강사지원 사업에 신청 후 국악과 연극 부문에 선정이 되었다. 국악 시간은 전문 국악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과와 관련된 국악 및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 요즘에는 전교생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데, 비록 8명의 전교생이지만 2학기에 열릴 판소리 경연대회 참가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연극시간은 교실이 떠나갈 것 같은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즐거운 수업이다. 현재 연극인 출신의 외부강사와 함께 연극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놀이 위주로 쉽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어 소규모학교에서 익히기 어려운 의사 표현능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자신감 또한 키워가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 아이들은 5년 전부터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바이올린과 플룻을 무료로 배우고 있다. 아이들 수가 적다보니 자연스럽게 1대1 개인지도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의 소질을 계발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학교성과 발표회에서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4. 체육활동(Physical Education)으로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해요

#### 가.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체력기르기

매일 학교에 등교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장을 뛰고 교실에 들어간 뒤, 기록표에 한줄 느낌과 함께 기록을 적고 있다. 중간 체육시간에는 건강줄넘기를 실시하여 자신이 세운 줄넘기 도달목표에 도전하고, 그날의 기록을 개인기록표에 적는다. 목표에 도달하였을 경우 스티커를 붙여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체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조금씩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PAPS(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 5, 6학년 3명이 과체중 진단을 받았다. 선생님들과의 회의 끝에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5, 6학년 교실에 간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실내자전거, 윗몸일으키기, 트위스트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운동을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체중과 체력에 관심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 시작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비록 아이들 수는 적지만 본교의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전교생이 티볼부에 가입하여 아침, 점심, 방과후를 이용, 선생님의 지도로 주루, 타격기술, 캐치볼 연습을 연마하고 있으며 프로야구 못지 않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고 있다.



## 나. 본교와 분교가 함께 하는 신나는 스포츠데이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체육 교과의 경쟁활동 영역(축구, 피구, 야구 등)에서 기술, 기능을 익힐 수는 있지만 단체경기에서 배울 수 있는 단결심, 협동심,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본교와 분교가 함께 하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GS 다이노스, GS자이언츠로 팀을 나누어 축구, 피구, 낚시, 발야구, 티볼,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를 하면서 본교와 분교가 같은 학교 학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친해지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아이들은 “선생님! 다음 스포츠데이에는 어떤 경기를 할 거예요?”, “빨리 스포츠데이가 왔으면 좋겠어요!”라며 매월 열리는 스포츠데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5. 맺으며

책(Reading)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가고, 음악과 연극(Art)을 통해 감성을 기르며, 운동(Physical education)으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는 우리 구서분교장 아이들!

아이들 가수의 톡톡 튀는 랩(RAP)처럼 큰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작지만 내실있는 교육으로써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 상 진  
밀양초등학교 교장

# 두레장학으로 수업의 꽃 피우다

## 1. 두레장학! 어떻게 시작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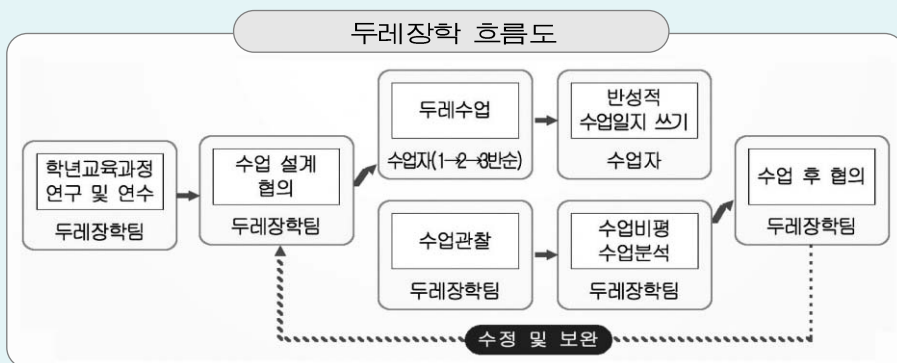
올해는 두레장학을 운영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이다. 지난 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본교 교사들은 수업의 질적 향상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본교가 가진 최대의 장점과 본교 교사들이 가진 최대의 강점을 살려 수업에 접목시킨다면 좋은 수업에 대한 본교 교사들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본교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한 학년에 여러 반이 있다는 것! 본교 교사들의 최대 강점은 수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 이렇게 두레장학은 본교의 물리적 환경과 본교 교사들의 열정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두레장학이란 동학년 교사끼리 교수·학습 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협의하는 동료 장학으로 특정한 멘토가 없으며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료 만들기, 수업 실행과 수업 후 협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두레장학을 통해 두레수업(동일한 교수·학습 계획안으로 실시하는 릴레이식 수업)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한다.

## 2. 두레장학! 어떻게 이루어지나?

### 가. 두레장학으로 수업 공유하기

각 학년 두레장학팀은 매주 목요일 학년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연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두레장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에는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 및 동료대상 수업 공개를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친 두레장학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수업이었다고 평을 받았다.



## 2012학년도 1학기 학년별 두레수업

5월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학년	6월 동료교사 대상 공개수업		
교과	단원 및 차시	학습주제		교과	단원 및 차시	학습주제
수학	4. 더하기와 빼기 (5/12)	덧셈 하기	1	술생	5. 자연과 함께해요 (2/6)	동물과 식물 무인조기
국어	5. 무엇이 중요할까? (2/6)	글을 읽고, 알게 된 점 말해보기	2	국어	7. 따뜻한 눈길로 (3/4)	다섯고개 놀이 알아보기
국어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2/6)	여러 가지 사실을 글로 쓰기	3	국어	8. 우찌미 오순도순 (1/3)	동음이의어 알아보기
국어	6. 의견을 나누어요 (4/6)	문장성분을 알고 문장 형식에 맞게 글로 쓰기	4	국어	7. 넓은 세상 많은 이야기(4/6)	기행문 정리하기
수학	3. 도형의 합동(3/8)	합동인 삼각형 그려보기	5	수학	7. 평면도형의 넓이 (2/10)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
국어	6. 타당한 근거(1/6)	글을 읽고 이어주는 말을 찾아 그 역할 알아보기	6	수학	7. 비례식(1/7)	비례식 알아보기

### 나. 두레수업으로 좋은 수업 만들기

두레장학 운영의 절차에 따라 두레장학팀은 동일한 교수·학습 계획안으로 릴레이 수업을 하는데,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반성적 수업 장학을 통하여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을 다음 수업자의 수업에 환류하여 적용하고 다시 반성회를 가진다. 수업을 하기 전에 교수·학습에 관한 진단과 처방을 충분히 하였을지라도 수업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기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전 협의록, 교수·학습 계획안, 수업 후 협의록, 반성적 수업 일지 등 하나의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성적 자료들을 통하여 수업이 향상되는 과정 및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 3. 두레장학! 이룬 것과 더 성장할 것은 무엇인가?

올해 3월, 본교로 전입한 김정수 교사는 두레장학을 운영한 후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레장학팀에서 공동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발문을 함께 고민하고 수업자료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수업을 하였더니 학생들에게 보다 더 쉽고 재미가 있으면서도 밀도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 학생들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어 저의 수업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수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 좋았던 점을 동료교사들과 함께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덕분에 수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두레장학 초창기 동일한 교수·학습과정안으로 수업을 하면 옆 반과 비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다소 있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두레장학을 통하여 ‘나눔과 소통’이 있는 수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 오감(五感)으로 행복한 학생을 기르는 Dandy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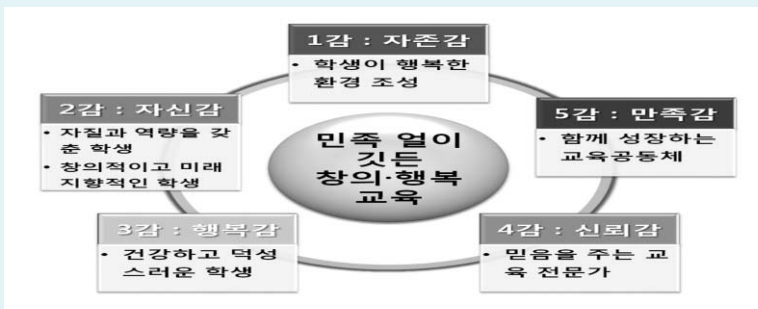


박복래  
거제 옥포중학교 교장

## I. 학생이 행복한 교육과정 운영

‘단디’는 경상남도 방언으로 ‘알차고 야무지며 실속이 있다, 잘’이란 뜻이며, 영어의 ‘댄디(dandy)’는 ‘멋쟁이, 훌륭한 사람, 으뜸가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교과부 지정 교과교실 A형 정책 연구학교 두 번째 해를 맞는 본교로서는 첫 해가 외형적인 면에 치우친 해라고 본다면, 올해는 교과 교실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며 그 도달점이 ‘멋지고 훌륭하며 으뜸가는 것’에 달아야 한다는 뜻에서 ‘단디(dandy)학교’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본교는 ‘민족 얼이 깃든 창의·행복 교육’을 지표로 하위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 요소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별칭을 붙였다.



## II. 학생이 행복한 오감(五感) 교육

### 제 1 감 - 자존감

-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

#### 1. 불편 Zero를 위한 노력

교과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차례 협의와 조정 결과 교실 이동 교사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여 불편을 해소하였다.

#### 2. 학습 능력을 높이는 교과 교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과 늦게 하교하는 학생을 교과존의 담당교사별로 불편 사항을 점검한 후 동(同)교과별로 협의하여 개선했으며, 학년부는 주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생활지도 및 학생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 제 2 감 - 자신감

-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과정 운영 -

### 1. 집중이수 교과 운영 및 평가

교과 학습의 결손을 막고, 학습자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교과서를 재구성하였고, 1학기에 6개 교과를 집중 이수하였다.

### 2. 영어·수학 교과의 순증 운영

사교육 부담이 많은 영어·수학 교과를 순증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수준별 확대수업 및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강사를 1명 확보하지 못한 영어과는 1~2학년만 수준별 확대수업, 수학은 전 학년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4. 블록수업의 운영으로 수업의 깊이와 질을 고려하기

3~4교시에 블록을 고정했으며 블록수업을 하는 교과가 많아서 3차례의 일과 조정, 5차례의 시간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운영하고 있다.

### 5.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를 위해 방법 모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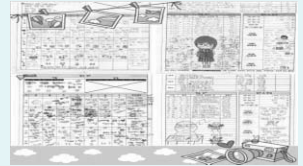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전교생 대상 자기주도적학습지, 학습플랜을 작성해 보게 하였다.



학습플랜 만들기 활동지 하는 모습 1



학습플랜 만들기 활동지 하는 모습 2



학습플랜 만들기 활동지 견본

## 제 3 감 - 행복감

-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

### 1.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행복지수 올리기

토요일을 '창의·체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체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교의 교육적 이념(민족 열 교육, 창의, 행복, 덕성 및 감성 개발)과 교내폭력이 빈번했던 본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성관련 프로그램(자율 창의 활동)에 34시간을 배정하였다.

### 2. 민족 열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본교가 있는 지역은 이순신 장군이 국난에 처했을 때 처음으로 승첩한 고장이므로 지역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현대적 의미에서 조명할 요소의 추출이 필요하였다.



자체 제작한 퀴즈(PPT)



포트폴리오 자료



가복선 모형 만들기

## 제 4 감 - 신뢰감

- 전문성 향상으로 수업 개선 여정 -

### 1. 연수로 'UP'되는 방법 고안하다!

향상된 물리적 환경(33 전 교과실에 전자칠판과 실물화상기 비치)을 바탕으로 전문성 향상 방안을 위해 금요일을 '연수의 날'로 지정, 연수담당자 지정, 연수 연간계획을 교육계 획서에 반영하였다.



교과교실 컨설팅 가이드에 소개된 본교 프로그램



기자재(전자칠판 활용법) 연수

### 2.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교과협의회 등 교과교사끼리 경력 교사와 신규 교사가 1:1로 멘토-멘티로 묶어서 상담 및 컨설팅을 했으며, 업무 및 학생생활지도 부문은 동 학년에서 멘토-멘티를 묶어서 후배 교사를 컨설팅했다.

## 제 5 감 - 만족감

-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

'학부모 교육', '관리자와 대화하기'를 강화하였고, 학부모대표와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토론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피드백했으며, 홈페이지를 정돈하고, 전 교사가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학생활동을 학부모에게 알렸다.

### Ⅲ. '단디(dandy)학교', 행복을 품는 교육 공동체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행복 교육을 추구하며, 건강·덕성·창의성을 갖춘 학생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옥포중학교. 학력 향상! 불편Zero! 오감(五感)으로 행복한 학생,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어우러져 멋지고 훌륭하며 으뜸가는 '단디(dandy)학교', 지역 사회가 인정하는 명품 학교가 되기 위해, 옥포중학교는 오늘도 날갯짓을 하고 있다. 꿈을 향해 비상하는 알바트로스처럼!

# 오광대 활동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



배 현 덕

의령 신반정보고등학교 교사

## 1. 동아리 활동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 가.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

현대인은 속도와 경쟁에 몰입한 나머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에는 익숙하지만 과거와의 대화에는 소홀한 편이다. 현대의 디지털 문화가 가져온 삶의 변화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역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게 해줄 뿐 아니라, 더욱 윤기 있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우리 고장은 전통적으로 한지의 생산과 오광대 공연지로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이곳 신반은 5일장이 열리는 상권의 중심지로서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물품 교류는 물론이며 춤과 노래를 통해 신명을 표출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본교는 이곳 신반에 자리 잡은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전교 학생수가 133명인 소규모 학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성을 살리는 1교 1특색 교육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 2. 본교 오광대의 목적 및 기본 방침

1984년에 창설된 본교 오광대부는 전통 민속 연희의 하나인 오광대(전통 무형 문화재 제7호) 놀이 전수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신장시키고, 우리의 지역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오광대부 운영의 기본 방침은 학생 자율적 동아리 활동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다. 선후배 간 협력 학습을 통한 자율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지도교사나 외부 인사의 개입은 가급적 줄이지만, 고성오광대보존회, 한

국가면극연구회, 우륵문화발전위원회 등에 수시로 자문을 구해 탈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다.

### 3. 운영 방법 및 활동 내용

#### 가. 운영 방법

2012년도 무형 문화재 전승학교(무형문화재 제7호-고성오광대)로 지정 되어 매주 수요일 강사가 초빙되어 전수를 받고 있다.

현재 본교 오광대부는 1학년 13명, 2학년 16명, 3학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교생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율이다. 학생 역할에 맞는 탈을 모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시간과 계발 활동 시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평소에는 상급 학년의 기능 우수자가 후배들에게 기본 무와 기본 악을 전수하며,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분야의 기능을 보유한 외부 인사의 초청과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하여 보충한다. 또한 매년 1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성오광대 민속보존회관에 1주일 정도 입소하여 기량을 연마하며 심신을 단련한다.

#### 나. 활동 내용

해마다 우리 지역 및 외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그간 연마해 온 기량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고 있다. 매년 참가하여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18회 전국청소년 탈춤경연대회 참가  
단체금상수상, 단체은상, 단체우수상, 단체장려상, 개인금상, 개인은상, 개인장려상
- 제13회전국청소년예술훈경상남도 대표 참가 - 아리랑상 수상(2006.9.28~29)
- 제16회전국청소년예술훈경상남도 대표 참가 - 아리랑상 수상(2009.9.10~11)
- 제19회 전국청소년 탈춤경연대회 참가 - 대상 수상(2007.11.10~11)
- 제18회전국청소년예술훈경상남도 대표 참가 - 은상 수상(2011.10.7~8)
- 제2회 의병의 날 -퍼레이드(2012.06.01)

이러한 왕성한 활동의 결과는 전국탈춤 경연대회와 전국청소년예술훈에 해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결실을 맺게 하였다.

### 4. 오광대의 교육적 효과

우리학교는 오광대 학생들의 자율적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계발하고 선·후배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오광대를

학교의 특색과 상징으로 삼아 학교 정체성 확립에 기여 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현실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체능 특기활동 지원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조하고 있다. 우리 고장의 주요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학생과 학교 및 지역 사회 전반에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 힘입어 3년간 오광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적극성을 계발한 학생들은 경남은행 고종공채(조보미), 삼성그룹 사무직 공채(구선민)에 합격하여 동아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 5. 맺으며

정보화가 이끌어가는 빠름의 물결은 우리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전통적인 것들을 곧잘 낳고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한다. 그렇지만 21세기에 있어서도 문화 예술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런 시점에 우리학교 오광대부는 한국적, 지역적인 전통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풍자와 해학에 깃들어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학생 상호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며,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사회의 경험을 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리 소개 활동사진(탈춤패)



2011. 10.7. 제18회 한국청소년 민속 예술제



2012. 6.1. 제2회 의병의 날

# 사이버 집단따돌림 (Cyber Bullying)에 대한 이해



최재용

한국소설미디어교육원 원장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하드웨어(Hardware)의 발달에 따른 소프트웨어(Software)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패러다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회 속의 인적 관계 형성 및 문화적 생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급변화의 IT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과제 속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오프라인 상의 왕따는 피해 학생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전이되어 24시간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이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무시당한 채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IT시대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 역기능인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 또는 ‘사이버 왕따’는 안티카페 개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헐박,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게재 등의 행위를 통하여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은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확산이 빠르고,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의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려워 과거의 오프라인 상의 집단 따돌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을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중 하나로 보기에는 점점 그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존감 저하, 두려움과 불안감 증대, 대인관계 단절,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II.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에 대한 이해

### 1. 사이버 집단따돌림의 개념 및 특징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다른 사람에 대해 해악의 의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문자메세지, 이메일, 개인웹사이트, UCC(User Created Contents, 이하 UCC) 등을 통하여 고의, 반복적 또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Li, 2007)를 말하며, 공통적인 요소들은 의도적, 반복적으로 전자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첫째, 광범위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따돌림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사이버상의 따돌림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또는 다수의 그룹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다수의 집단이 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가능하다.

둘째,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에게 악성메일 및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악성댓글 및 욕설 등을 작성하며, 직접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

셋째, IT 발달에 따라 지능화되고 있다. 스마트기기 및 휴대폰,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메신저, 카페, 블로그, 이메일 등등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매체의 이용이 가능해져 보다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2. 사이버 집단따돌림의 종류와 유형

#### 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인터넷 상의 포털사이트 내에 카페를 개설하여 다수의 인원이 개인을 비방하고 사진을 편집하여 괴이한 형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나라한 댓글과 욕설을 작성하며 뒷담화를 형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 카페만 해도 1,000여 개가 넘는 실정이다. 이 외에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등의 현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집단따돌림 사례에 해당한다.

#### 나. 모바일 메신저

기존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되는 SMS(Short Message Service, 이하 문자메시지)는 건당 요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상 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전송까지 전체 무료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해소되어 전송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한 협박, 금품요구 및 갈취 및 타인의 의지에 의해 강제로 찍혀진 동영상들을 서로 전송하고 이를 공유하여 공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고 있다.

#### 다. SN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싸이월드 등의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것들을 이용하여 수집되어진 특정인의 사진, 영상, 개인정보(신상 털기), 허위사실유포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향력 강한 SNS는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 라. 기타

이외 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의 계정과 캐릭터,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을 해킹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으며, IP(Internet Protocol)를 추적하여 장소를 알아내거나 채팅이나 전화를 통하여 직접 찾아가는 일명 '현P(현실)의 앞 글자인 '현'과 'Player Kill'의 앞 글자인 'P'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비화되어 당사자들이 현실에서 직접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일)와 같은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 III. 청소년 사이버 집단따돌림의 올바른 예방 및 대처방안

#### 1. 제도적인 측면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가해학생의 범법 인식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올 1월 51개 주(州) 중 14개 주에서 '사이버 집단따돌림'의 정의와 처벌 기준이 마련됐으며, 추가로 6개의 주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17일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통한 해결책보다는 사이버문화 조성 과 근본적인 교육을 통한 예방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너무 커 자율 기능에 맡기기는 매우 어렵다. 사이버상의 괴롭힘도 엄연히 학교폭력의 하나이므로 피해학생이 이를 건의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등 향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 조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가해학생의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을 금하게 하거나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이버 역기능의 해결책으로 인터넷 상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 블라인드 처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관리 의무 강화, 온라인 게임 섀다운 제도 도입,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사이버 집단따돌림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통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히 자각하고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한 사전 감시는 물론 사후 확인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키워드의 필터링을 의존하는 기술적 장치도 해답이 될 수 없는데,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이버 집단따돌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초등학교생일 경우 법을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당장의 행위를 중단시킨다고 해도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남아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체계를 통하여 사이버 집단따돌림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 2. 교육적인 측면

앞서 보았듯이 사이버 집단따돌림은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어려서부터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미디어의 홍수, 마이크로 미디어 시대에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인간 관계에서 미디어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에 적합한 근본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가. 정보통신 윤리 및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확충

초·중·고 대상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2004년부터 실행되고는 있으나, 1년에 1회 1시간 정도로 실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재원 확충으로 교육 시간과 횟수를 늘리고 교육받는 대상 역시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나. 사이버상의 학생지도 활동 및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상에서 피해를 가한 학생이 온라인에서도 가할 확률이 높으므로, 교사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피해학생들이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에 해당 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대표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래스팅(Class+Meeting의 합성어)’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일대일 소통이 가능하고 비밀 상담방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차례로 불러 친구의 소중함과 우정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기를 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SNS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가디언(Mobile Guardian)’은 자녀가 학교폭력 의심문자(키워드 지정 등록 방식 ‘죽을래’, ‘맞을래’ 등)를 받았을 때 부모의 이메일로 내역을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하루에 한번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체계의 스마트폰만 지원되며 일반 핸드폰의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요즘은 무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욱 많아진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제한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조금은 아쉽다.

### 다. 가정에서 부모 및 사회에서 어른들의 역할

어른들의 스마트 디지털의 무지와 무관심이 아이들과의 소통 단절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

온다. 어른들이 먼저 SNS 및 스마트 기기에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것들에 대한 빠른 반응과 지식들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는 반드시 자녀들만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투자가 아니며,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통제보다는 칭찬이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선도하는데 효과적이며,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현 시대에 적합한 소셜문화를 인식시키고,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셜문화의 공동체 중 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어야 아이들에게 건강한 윤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 라.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또는 사이버 리터러시(Cyber Literacy)의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 비판적, 창조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양방향성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즉 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미디어를 선택하고 다루는 기초 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로라 구락은 사이버 리터러시 개념을 주장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초고속, 익명성, 도달성, 양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공간에는 새로운 규제와 질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고, 정당한 논쟁과 극단주의를 간파하고 문제를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VI. 결론

사이버 집단따돌림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만큼 피해 정도가 크다. 이에 따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 형성 및 체계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의 확대, 사이버상의 학생지도 활동 및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의 해석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국가,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법을 연구할 수 있어야겠다.



참여  
마당

교원 마당

## 덕천강



황 명 수

산청 지리산고등학교 교사

그대는 시원한 냇물이네  
시퍼렇게 살아서  
빛먹처럼 흐르는 것이  
꿈을 먹는 덕천강

초저녁 달빛이  
고개를 쳐드니  
달이 떴다 하네  
심술 구름 사이를 비집고  
뜨 달  
하늘에 엮지른 잉크를 닦네

흐르는 덕천강 물줄기처럼  
저 덕천강의 하늘을 누가 그렸나  
꿈을 꾸는 젊은이  
사랑하고 싶은 진한 가슴을  
확 드러내어  
철렁 철렁한 아름다운 밤  
아 한줄기로 소리치고 싶은  
망망히 흐르는 덕천강이네

너는 미래를 가진 사나이  
눈앞에 쌓여진 그 얼들  
애절한 사연 잔잔히 깨어날까  
덕천강의 밤하늘은 언제나 달이 밝아  
물 빛 사랑을 스스로 느끼고 싶네.





## 작은 학교에서 피어나는 큰 기쁨!



박 해 연

창원 화양초등학교 학부모

감꽃이 떨어져 어느새 열매로 커가는 계절에 자연과 함께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마다 저렇게도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지, 그 표정을 지켜보는 엄마로서 새삼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10여년 전 큰 아이가 네 살 때 김해에서 동읍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의 편리함을 버리고 시골의 작은 학교가 있는 이곳으로 이사 온 가장 큰 이유는 마당에 포도나무, 앵두나무, 상추, 고추를 심으며, 자연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삭막한 학교 속에서 많은 학생 중의 그저 이름 모를 한 명의 학생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시골 학교의 자연 속에서 선생님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모두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이에게 큰 보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작은 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치 저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쉬는 시간이면 논두렁 사이를 누비며, 개구리도 잡고 이름 모를 들꽃을 관찰하다 눈에 빠져서 신발이며 바지며 흙범벅이 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을 그 광경을 상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신발과 옷들을 깨끗이 씻어 주면서 언제든지 이런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보냅니다.

가끔 도서관 도우미를 하기 위해 학교를 둘러보면 아이들은 흙 범벅이 된 신발을 수돗가에서 씻으며 깔깔거리기도 하고, 등나무 아래에서 재잘재잘 얘기꽃을 피우며 쉬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누는 얘기 소리와 웃음 소리가 교문 밖까지 들리는 그런 학교를 바라보며 또 한번 '역시 내 결정은 정말 잘 한 일이야' 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느덧 큰아이는 졸업을 하고, 이제 작은 아이가 더 신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층 더 예쁘게 정돈되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올챙이와 개구리와 더불어 지내는 교정에서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만나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교정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험활동, 운동장 곳곳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과도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각기 다른 주제로 시행하는 스포츠 활동이 너무나 재미있어, 솔직히 늦잠 자고 싶은 엄마의 맘을 나 몰라라 하며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조르는 작은 아이, 살짝 알뜰 다가도 이내 미소 지으며 차키를 들고 나서게 됩니다. 다함께 티볼이며 축구며, 가끔씩 가는 수영장, 매월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프로그램 등이 너무나 재미있어 학교가 집보다 더 좋은 이 현실, 웃어야 하는 거겠조?

또한 다가올 학교 야영 행사도 유치원을 비롯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한 팀이 되어 밥도 해서 먹고, 게임도 하고, 텐트에서 잠도 자는 정말 캠핑 같은 야영이 아이들에겐 몇 훗날까지 가슴 속에 남아갈 특별한 추억이 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한 명 한 명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교육활동 덕분에 내성적이던 아이는 고학년이 되어 가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서 늘 주변에 친구가 많아졌답니다.

이런 아기자기, 알뜰살뜰한 학교가 어디 또 있을까요?

엄마들도 학교에 부담 없이 다가가서 운동장의 풀도 뽑고,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진정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학년별 모임과 아이생일 모임도 하다보면 엄마로서 주부로서 우울증은 고사하고 서로가 이웃사촌보다 더 진한 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엄마의 말을 빌리면 “모두가 언니이고, 동생이고, 모두가 형부 같다.” 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학부모들도 자주 보게 되고 친해지는 화양의 식구들, 그 말에 절대 공감하는 저는, 좀 더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덩달아 아이들도 친형이 없어도 친동생이 없어도 화양초등학교 아이들 모두가 형, 누나, 언니이며 동생입니다.

7년 정도 창원화양초등학교와 인연을 맺고 지내 오면서 마음의 여유가 무엇인지, 아이의 밝은 표정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굳이 유명한 강사의 강의가 아니어도 깨달음이 생기는, 여기 화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밝고 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작은 학교 창원화양초등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선생님,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님, 화양의 모든 식구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 선생님과 함께 산을 오르며



이 지 훈

창원 창원남중 3-4반

3월 초 새 담임선생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 중의 하나가 매월 한 번은 놀토에 사제동행 등산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반 친구들은 모두들 주위를 둘러봤다. 그냥 해보는 말씀이겠지 하는 눈빛이었다.

선생님의 약속대로 창원 반송공원 둘레길 걷기를 시작으로 3월부터 사제동행 산행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2일 토요일, 해발고도가 조금 더 높은 무학산을 오르는 날이다. 친구 10명과 함께 마산 만날고개에서 선생님을 만나 대곡산을 거쳐 무학산 정상으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선생님께서서는 간식과 김밥을 준비해 오셨다. 정상에서 친구들과 김밥을 나눠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땀 흘리며 올라올 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은 온데간데 없다.

우리 반의 등산은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월 이벤트가 있다. 3월엔 서먹한 친구들끼리 빨리 친해지라고 대중 목욕탕을 갔다. 처음엔 서로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 등산길 주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한다. 내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왜 주워야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들이 쓰레기를 주워 내려오면서 깨끗해지는 산을 뒤돌아보면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사제동행 등산을 하면서 친구 간에 사이 좋게 지내다보니 우리반에는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낯설다. 서로 땀흘리며 등산하는 친구끼리 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들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시는 장인산 선생님께 참 고마운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3학년 4반의 사제동행 등산은 쭉욱 이어질 것이다.



# 「왓칭(watching)」을 읽고

-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 -



김 정 민

창원 가고파초등학교 교사

서점에 들렀다가 강렬한 노란 색 겉표지에 나의 속마음을 주시하는 또 하나의 큰 눈동자가 그려진 책과 만나게 되었다. 눈동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책 앞으로 다가갔다. 책의 겉표지가 「왓칭(watching, 관찰)」이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이끌려 결국, 그 책을 구매하게 되었다.

책의 부제는 '신이 부르는 요술'이다. MBS 보도국 기자로 25년간 활동 중인 저자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과 그 순간을 극복하는 신의 선물로 「왓칭」을 말한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왓칭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태도를 말한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는가에 따라 세상과 삶, 자아가 변화되는 관찰자 효과를 왓칭이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관찰자의 생각과 마음의 이미지가 세상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저자는 양자 물리학에 의해 확인된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은 무엇인가? 저자는 관찰자 효과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것들과 고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바꾸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왓칭의 놀라운 효과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 한 예가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는 경우이다.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아이의 음악적 성취는 천양지차가 된다.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음악에 관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2부에서는 왓칭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왓칭이 일상에서 부릴 수 있는 요술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신을 바꾸는 왓칭

요술은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이다. '서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동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릿속 이미지의 변화만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왓칭 요술은 '나를 남으로 바라보면 효과는 백배가 된다.'는 것이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면 쉽게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키가 8cm나 커진 사례도 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요술의 중요한 팁은 상상 속에 청중을 등장시켜야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신만 등장하는 것보다 청중을 등장시키면 머릿속의 이미지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왓칭 요술은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는 것이다.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그려보라는 의미이다.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왓칭 요술은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스틸 교수의 시험에 의하면, SAT 시험을 치르기 직전 흑인 학생들에게 인종을 명시하도록 했을 때, 그들의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한다. '흑인'이라는 단어를 기입하며 본 순간 '흑인들은 머리가 나빠'라는 편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능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두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다.

다섯 번째 왓칭 요술은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이다. 우리의 부정적 감정에 불을 댕기는 것은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뇌의 아미그달라(편도체)라는 부분이다. 이 아미그달라의 스위치가 on에서 off로 전환되어야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반발하는 것은 아미그달라의 또 다른 반발을 유발할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만큼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는 어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라도 그 자연적 수명은 90초에 지나지 않으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조용히 주시하기만 하면 금세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때 90초 동안만 그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거울에 비춰준다고 생각한다면 실천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저절로 스위치는 꺼진다. 물론 저자의 언급은 없었지만 조용히 바라보는 것과 그냥 참는 것은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바라보면 치료가 되지만, 그냥 참으면 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왓칭의 주체는 누구일까? 3부는 그 주체에 대한 이야기다. 당연히 나라고 해야겠지만, 단순한 내가 아니다. 그 주체는 자신의 영혼이다.

그 영혼은 두뇌의 밖에 있다. 어떻게 내 영혼을 느낄 수 있을까? 영혼에 눈뜨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며 살아라. 저자가 들려주는 간절한 메시지다.

정신분석가 코헛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등감이 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어릴 때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부모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거울 하나는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 있다. 내 마음 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처음부터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은 어쩌면 물질이 풍부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가 아닐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해졌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며 살라'는 저자의 조언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는 '관점'의 변화, 즉 '왓칭'의 변화이다. 그렇다면 '왓칭'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너무 멀리 있는 미래를 걱정하여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과 육체 너머에 영혼이라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알면 이 세상에게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왓칭'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나'란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진정한 왓칭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선물일 것이다.

작품명 : 응봉산계곡(20호)



**작품 해설 : 강원도 삼척의 응봉산계곡!**

계곡을 따라 산길을 오르면 온통 이끼와 돌단풍으로 멋진 정원이 펼쳐진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인데 어쩌면 저대지도 소담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

---

---


## 이 외 선

- 현 김해시 한림면 안명초등학교 교사  
한국미협 창원미협 경수협  
초등미술교과연구회 회원
- 저서 : 마누라와 산에 간다 I  
마누라와 산에 간다 II  
마누라와 산에 간다 III

# 제2회

# 대학진학 박람회

- 일시 : 2012. 7. 14.(토) ~ 7. 15.(일)
- 장소 : 창원용호고등학교
- 참가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 10,000명
- 참여 대학 : 수도권 30개, 영남권 22개 총 52개 대학
- 박람회 일정

박람회장	장소	7월 14일(토)	7월 15일(일)	참가방법
제 1 관 대학 전형상담관	강당	- 30개 대학교 상담부스 운영	- 29개 대학교 상담부스 운영	자유 참가
제 2 관 대입 설명회관	후관 4층	- 28개 대학교 참가 - 각 대학별 2013학년도 대입 전형 설명회 진행	- 24개 대학교 참가 - 각 대학별 2013학년도 대입 전형 설명회 진행	
제 3 관 심층면접관	후관 3층 7개교실	- 14개 대학교 참가 - 대학별 특색있는 면접 진행	- 11개 대학교 참가 - 대학별 특색있는 면접 진행	온라인 으로사전 신청 <a href="http://jinro.gnedunet">http://jinro.gnedunet</a>
제 4 관 수시 대입상담관	후관 2층 자습실	- 20개부스, 수시 대입 상담 320명 예약 (농어촌 포함)	- 20개부스 수시 대입 상담 320명 예약 (농어촌 포함)	
제 5 관 선배 특강관	후관 1층 5개교실	- 수도권 소재 대학, 국립대, 교대/사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자기주도학습 방법 및 학습코칭 5개의 모듈 운영 - 선배들이 직접 특강 진행	- 수도권 소재 대학, 국립대, 교대/사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자기주도학습 방법 및 학습코칭 5개의 모듈 운영 - 선배들이 직접 특강 진행	

